

'끊임없는 변화와革新선도 강조'

포천署, 혁신지향 성과분석 보고회 개최



포천경찰서(서장 김종해)는 1월22일 경찰서 혁신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지향 06년도 성과분석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06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각

가능별 세부 추진사항 분석과 이에 대한 총평, 잘된 점, 미흡한 점, 07년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해 포천경찰서장은 훈시를 통해 "성과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 날로 늘어나는 절도사건 대비를 위

해 자율방범대 등 민·경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강조하고, 2007년 한해도 06년도 성과분석을 토대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선도로 역동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7년도 경기도 보육료 등 수납 한도액 안내

2007년도 경기도 보육료 수납 상한액(월)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입소료 : 95,000원이며 -재입소로 인한 입소료 수납시 입소료의 50%이내에서 수납한다.
*상한액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조정시행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 월 70,000원 이내 수납하며, 특수보육료 : 시간연장, 야간·휴일·시간제 보육료는 여성가족부 지침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돌봄아(0세-1세) 이상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돌봄아 이

상, 쌍둥이는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액 : 국공립 보육료 수납액의 70%(0세-월245천원, 1세-215천원)-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제외대상 : 시간제, 휴일보육인 경우, 실제보육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인경준 중앙특수아린이집 원장 (031-534-0277)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천원)

연령별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0세	361	361	361
1세	317	317	317
2세	262	262	317
3세	180	250	256
4세이상	162	230	256

* *상기 금액은 2007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안내에 적용을 받습니다.

목회단상

행복의 신비



김형성 내촌교회 목사

행복의 나라를 펴고 시작하지 벌써 한 달을 적어야 하는 순간에 이르렀다. 행복의 여신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에게 행복의 주소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각각각색일 것이다. 어떤 이는 돈 속에 행복이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권력 속에, 또 어떤 이는 가정 속에, 건강 속에 있다고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에서 힘있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잘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 속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행복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일기학문(日記學文)의 대표자였던 아미엘은 '행복의 진정한 이름은 만족'이라고 하였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만족한 인간의 것'이라고 했다.

가끔 사람들은 행운을 행복으로 착각한다. 행복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선이지만 행운은 '운'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요행이요, 우연히 굴러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은 행운(幸運)처럼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창작하고, 힘쓰는 성실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가까운 데서 찾지 않고 먼 데서 구하려고 한다.

행복의 극작가 메테를링크가 지은 명작 '파랑새'에 보면 "아니, 저것은 우리가 찾아 헤매던 파랑새로구나. 우리는 아주 멀리 가서 찾았지만 사실은 여기 있었구나"라는 구절이 있다. 이 얘기는 두 어린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멀리까지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

나 종래 찾지 못하고 실망 끝에 피곤한 몸으로 제집으로 와 보니 그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그의 집 처마 밑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행복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행복은 우리의 가까운 데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한다. 아주 가까운 곳, 아니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지의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서 세상에서 나는 불행한 자라고 불행속에 자신을 파묻고 살아간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영혼(靈魂)의 만족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서는 주인에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행복은 영혼의 만족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 빌립보서 4장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하시며 4절에서는 주인에서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교훈하신다.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자연속의 구조적 원리와 휴건축의 형태



장덕철

(포천 노인전문병원 한방원장)

이번 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꽤나 유익한 책 하나를,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오직 흙밖에 없었던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 흙을 가지고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은 쉽게 그려낼 수 있다. 그러나 지붕은 어떻게 덮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실제로 흙만을 가지고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다. 아라비아 반도의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들의 건축을 보면 그들이 자연이 만들어 낸 구조물들 뒤에 숨어있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의 구조물에는 공통적인 원리가 숨어있다. 그 원리란 <최소의 재료와 최대의 효용성>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거미줄이나 흰개미집, 나뭇잎들, 새둥우리, 비눗방울, 조개껍질, 꽃들, 그리고 분자의 구조들은 모두가 <최소의 재료와 최대의 효용성>이란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있다.

조개껍질은 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조개가 사용할 수 있는 바닷물 속의 칼슘성분을 재료로 하여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크고 튼튼한 공간을 만들어 낸 결과이다. 달걀은 왜 럭비공처럼 생겼을까. 위에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이다.

새들은 왜 둥우리를 만들어낼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이다. 나뭇잎은 왜 나뭇잎의 모양을 하고 있을까. 또 역시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렇게 자연은 수 억년 동안 <학습>을 한 결과, 제한된 재료를 사용하는 조건하에서 어떤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구조인가를 알아낸 것이다. 누가 가르쳐주었을까, 아니면 스스로 알아낸 것일까. Nobody knows.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없이 <신기한> 일이다. 건축이 단지 <쌓아올리는 행위>라면 건축은 그 순간 파악한 뿔뿔스러기처럼 맞대기 없는 고역이 되고 만다. 그러나 건축은 뿔뿔스러기가 아니다. 맛있는 것은 뿔뿔스러기가 아니다. 맛있는 것은 <탐구의 과정>이다. 자연(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밀을 흉내내는 작업이다.

사람의 건축이 조개들의 건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 No way! 절대로 그렇지 않다. 조개들의 건축이 훨씬 치원이 높은 건축이다. 그들의 <구조역학>을 사람이 따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시공법>을 도저히 따를 수도 없다. 건축에 관련한 사람들은 조개에게서 배워야한다. 거미에게서, 새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건축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든다. 자연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그런데 인류의 건축 중에서 그런대로 자연의 원리를 이해한 건축이 있다.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의 건축이다.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건축이다. 대단한 조상을 둔 지역이다. 그들의 건축은 흙만을 사용해서 돔(dome)과 아

치(arch)와 볼트(vault)의 구조물을 지어 낸 것이다. 그런데 건축에서의 현대의 구조역학에서는 돔과 아치와 볼트의 곡선구조가 가장 안정되고 튼튼한 구조라는 것을 계산해낸다. 그것도 가장 적은 재료를 가지고, 물론 처음부터 아라비아의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구조역학을 이해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지 그들은 흙을 가지고 지붕을 덮는 문제에 팔머리를 뒀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돌이라는 구조를 생각해 냈고, 그것을 오직 두 손만을 가지고 쌓아올리는 방법을 생각해 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 그 방법을 알아내고는 그 방법을 대대손손 전해주었을 것이다. 그들의 건축은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을 가지고 집을 지으시려면 자연(동물과 식물)의 건축 원리를 따르시는 것이 제대로 <자연건축>을 하시는 것이 된다. 흙이라는 재료는 무한한 형태의 가능성을 가진 재료이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에 제일 그 멧대기리 없는 직선의 건축을 택하지는 마시라.

필자연락처 : 011-628-4214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신고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후 사실과 다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에 의하면 진료내역 신고절차 및 보상금지급내 호보를 통해 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진료내역이 상이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와 증빙자료 등을 우편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확인결과 밝혀질 경우 2천원 이상 2만원 이하인 경우 6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2만원 이상인 경우 부당 환급금액의 30%를 지급한다.

자세한 문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전화 031-544-3419(보통급여팀) 혹은 인터넷 http://www.nhic.or.kr로 할 수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전기요금 복지할인요금제도 확대시행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을 15%에서 20%로 확대

한국전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 및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의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일부 조정했다.

주택용 고객중 (순수주거용)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고, 5인 이상 가구 주택용 누진단계 하향적용 및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20%)를 2007년1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할인제도를 확대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은 해당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

서, 독립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 사회복지시설허가증등) 및 신청서와 함께 한전에 (내방, 팩스, 사이버지점) 제출하면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명의 신청시 요금에 대한 소유자 보증의무 폐지 및 당사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수납 환불금에 대한 이차율 개선등 공금 약관등을 개정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나 ☎ 국민없이 12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일반가구 건축자재에 필요한 PB·MDF·합판 비닐접착 전문



창성산업은...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양질의 제품을 생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 조봉구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81-16 Tel. 031)541-8162